

“아끼고 다듬어 말하자” 늘 되새겨

산문박의 禪

방송인 이계진 씨



“아나운서는 방송쟁이입니다. 쟁이에 쟁이는 쟁이의 정신이 있지요. 말은 일을 철저하게 이루려고 하고 선배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려는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사람 즉 프로그 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꽤어난 미남은 아니지만 사람 좋은 웃음이 늘 떠나지를 않는 아나운서 이계진.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항상 정겹다. 누구에게나 너그러움과 편안함을 안겨준다.

출연료 btn 주식공모

그의 방송이 그렇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듯하다. 그래서 팬이 많다. 말아들길고 삼촌같고 친구같고 연인같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

“일상생활과 방송일에 별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는 그의 말처럼 그가 살아가는 모습과 그의 방송을 본 이들은

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11시에 만나다> <가정자널> <백세퀴즈쇼> <이계진의 아침마당> 등과 요즘은 <한밤의 TV연예> <슈퍼TV 세계가 보인다>와 같은 연예 오락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맡게도 오래 된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있는 그의 진행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굳은 신뢰감을 준다.

오랜 방송생활 덕분에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만들어졌다.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진행, 인간미가 넘치는 자연스런 진행이 그것이다. 시청자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다.

“많은 칭찬의 말을 들지만 그 말이 주는 의미 역시 하나의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뿐이지요.”

할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루며

생활처럼 꾸밈없이 방송 진행 ‘보는 사람 편안’ “차맛 같으면서도 항상 새롭기 위해 노력해요”

정말 그렇다는 동감을 표시한다. 삶에 꾸밈이 없기에 방송일에도 꾸밈이 없다. 그냥 물 흐르듯이, 산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자연스럽다.

그는 방송생활을 오랜 동안의 취미인 다도(茶道)에 곧잘 빗대어 말한다. “멋모르고 시작한 것도 똑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이 가는 것도 같다. 정이 가는 만큼 더욱 정성을 들이고 또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똑같다. 방송을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늘 다짐한다. 차맛과 같은 모습을 잃지 말자요...”

“꾸밈이 많은 기계적인 방송은 생명력을 잃은 단순한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계진씨. 사람됨을 좀처럼 잃지 않는 프로그쟁이 그에게 대해 ‘참 맑다’는 한마디로 평하고 있다.

지난 73년 KBS 공채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계진씨는 올해로 방송일에 뛰어들어 24년을 맞았다. 그동안 그가 진행해온 프로그램은 무척이나 많다.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를 진행하던 뜻뜻하고 정감 어린 모습을 아직도 많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끓고 목수가 나무를 깎듯 지혜있는 자는 자신을 다듬는다. <법구경>에는 평소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과 수행이 들어야 함을 위와 같이 노래하고 있다. 어떤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자기 자신이 그것의 중심이 되어 수련해 나가는 과정이 쌓여서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계진씨는 경력이 쌓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늘게되는 요령 피우기에 빠져들다가 늘 조심한다. 방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꼭 지켜왔다. ‘뱃사람은 뱃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을 가슴속에 꼭꼭 지니고서 이따금 시간이 남을 때대 출연자들, 스태프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음모나 목소리 같은 기본적인 자질 외에 보편적인 가치관과 건강한 판단,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줄 아는 눈, 항상 상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있는 자세를 방송인은 지녀야 합니다” 라는 이계진씨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송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얼마전에는 주위로 부터 끊임없이 정치입문의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그의 길은 방송인으로 사는 것 뿐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치입문 유혹 뿌리쳐

“사실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에 제 자신을 잃어버릴 뻔 했지요.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 ‘거사가 정치하게 되면 차맛을 잃어버릴 것이요’라는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명예, 권력이 있는 화려한 생활보다 차맛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이 인생의 참맛이란 것을 그는 오린 다도(茶道)의 행으로 깨닫고 있는지도 몰랐다. “말의 함에 대해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지요. 한번 뱉어진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주안에서 퍼들며 그 힘을 발휘한다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방송한 소리의 잔향도 계속 우주의 허공을 날아다닐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끼고 다듬어서 말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한다. 비록 흔적없이 사라지더라도 어느 한 순간만은 그의 말이 시청자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삼라만상에 가득한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그러하듯이.

이계진씨는 얼마전에 하나의 작은 불사를 단행했다. 다름아닌 그동안 불교TV <나의 삶 나의 불교>를 진행하며 받은 출연료를 불교TV 3차주식공모에 고스란히 내놓은 것이다.

“방송의 어려움을 누구렇지 않게 잘 알고 있는 제가 부처님 말씀을 영상으로 전하는 불교TV에 참여한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출연료 받은 돈을 불교TV에 투자를 한 것뿐입니다. 불교TV는 바로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이고, 또 그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불법을 생생하게 배우고 또 배우나가는 수행의 도량이지요.”

이은자 기자

49재는 왜 지내는지요

문 사람이 운명하면 7일 단위로 재를 지냅니다. 그렇게 일곱번, 49재를 올리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지상·경기 이천 대월면)

답 49재, 칠칠일, 칠칠재를 다른 말로는 중음(中陰)법이라고도 합니다. 약사여래본원경 등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즉 중유(中有)·중음의 기간이 49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까지의 시기엔 육신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영혼을 또다른 형태의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업식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영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깨달은 이가 영식을 받다할 때 어떤 고정된 모습을 보는게 아니라 그분의 살아 생전의 마음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 없어져도 생전의 의식차원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다 밝은 차원으로 이

미륵불이 오신다는데...

문 경전에 의하면 말법세상 어느 때인가 미륵불이 나오셔서 세상을 구제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천세용·강원 춘천시 신북읍)

답 미륵이요? 미륵 또한 이름입니다. 동방에는 아축불이 있고 서방에는 아미타불이 있고 사바세계엔 관세음보살이 있고 지장국엔 지장보살이 있다고 했거든요.

누구나 깨달으면 관세음이고 지장이고 아축불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지요. 사람이면 누구나 중생을 진득 안고 살며 부처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구보리 하회중생이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천도를 부탁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을텐데...’ 하더군요. 참으로 뜻깊은 말씀입니다.

참나에 불을 켜면 그대로 아축불 아미타 불이고 참나에 불을 끄면 중생입니다. 그러니 불이 꺼졌더라도 다시 켜 열이 있으면 불을 켜듯이 넣어 죽었으면 다시 어리개로

지 상 상 담
길 들 묻 는
이 계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상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선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너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끌어 주는게 천도의 의미입니다. 비유하자면 눈 뜬 사람이 잠을 이끌어 주는 도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천도를 한다할때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도리를 알아 부처님이나 조상님이나 자신이 다 한마음인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불켜놓고 기도드리는 것만으로는 천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법인으로 표현됩니다. 제법이 무아요 제행이 무상이니 천도제 역시 연기-공의 도리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조상님 좋은데로 가십시오’가 아니라 ‘조상님, 조상님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둘이 아니오 제 마음과 둘이 아니니 그 도리를 깨우치도록 하십시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조상의 중생적 모습만 보고 참근본의 모습-부처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참다운 천도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해줄 것은 요즘에서 천도제가 형식에 치우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천도제를 해야 할 경우도 있고 안해도 될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찰에서 무조건 천도제를 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천도제를 할때도 지극한 마음이 앞서야 할 것을 천도비용이나 상차림이 우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천도제는 오히려 조상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공부 열심히 했다면 천도할 것도 없습니다. 이점 잘 아시기 바랍니다.

태어나 어른이 되어야 하겠지요.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서 동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서 동쪽으로 왔고 애가 태어나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면 그게 바로 미륵부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기하기를 ‘너는 후생에 부처가 되어 그 이름을 미륵이라 할 것이니’ 하셨는데 질문하신 분께서 마음도리를 밝히고자 정진하신다면 부처님께서 수기하기를 ‘너는 후생 어느 때에 부처를 이뤄 이름이 무엇일 것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부처될 자격이 있고 부처되는데는 신분이나 성별·학력같은 자격이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라고 어찌 부처되기를 기약하지 못할 것이며 어느 누구라고 또 부처되기를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누구나 들고 돌아 미륵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륵부처가 따로 있다, 그러므로 그 미륵부처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제할 인연을 기다리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형상에 얽매인 것이요 가르침과는 심판할지나 멀어지는 것입니다. 미륵불출현의 수기는 어린 아이가 자라서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미륵불이 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사람 가운데 아는게 너무 많아서 그란 이론의 땀줄을 끊지 못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땀줄을 끊어야 탄생했다고 할 것이니 아는 것 모르는 것 다 내려 놓아야 합니다. 사랑분별이 떨어지지 않고서야 미륵불 도래의 인연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달고 나면 스스로 뜻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8기 佛敎義式(범음·범패)學入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다비시 등
 - 작법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3개월(각 과정)
- 원서접수: 1996년 3월 18일 ~ 4월 23일
- 개강일시: 1996년 4월 23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량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 옆 경동빌딩 3층 TEL: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중국명문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연수

- 대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8박9일
- 주요연수내용: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 연수후: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수여 (침구, 기공)
- 인원: 15명 이내
- 출발일: 1996년 3월 21일 (목요일)
- 남경중의약대학: 중국 남경 660-7129
-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2026·2027
511-2028·1080
FAX. (02) 511-1080

불교사상, 교학, 수행, 신앙지도 및 불교사상과 현대사상과의 접촉을 통하여 불교사상의 진수를 맛보고 삶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불교교육의 전당!

정토불교대학

바른불교/쉬운불교/생활불교

교과과정

- 제1기 실천적 불교사상 불교의 근본사상과 불교의 인생론 생활속에 불교의식
- 제2기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사상 인간본다, 그 위대한 삶 영원한 자비의 교화체계
- 제3기 불교사상의 연기관 체계 불교사상의 실상론 체계 부처님의 나라, 인도의 불교사
- 제4기 역사의 변동과 불교사상의 변천 선불교의 핵심과 선택의 흐름 중관과 대승사상의 체계
- 특 강 불교수행의 원리와 그 실천방안 불교의 교육사상과 상담원리 지구생태계의 위기와 불교적 현대명명의 위기와 불교적 대안 수행과 통일로서의 신앙원리

강사

- 법륜(스님/정토불교대학 학장)
- 보수(법사/중앙불교교육원 원장)
- 경수(법사/정토불교대학 상임법사)
- 지장(법사/정토불교대학 상임법사)
- 요단(법사/정토불교대학 상임법사)
- 연명(법사/정토수련원 지도법사)
- 덕성(법사/정토불교대학 교육담당 법사)
- 범운(법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 무변심(법사/한국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
- 보수(법사/월간 정토 주간)

입학대상

- 모집인원: 주간-50명 / 야간-50명
- 입학자격: 바른불교를 찾고자 하는 사람 (연령, 학력 제한없음)
- 등록 접수 문의처:
 - 접수기간: 3월 15일 ~ 3월 31일
 -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 / 반명함판 사진 1장
 - 접 수 처: 각 지역 정토불교대학 교무과
 - 각 기는 개별명, 초보자도 모 든 과정 동참가능

전국 정토불교대학 일정 및 연락처

- 서울(총계) 02-379-1050/4월12일-8월30일 매주 금요일
- 서울(서초) 02-522-2841/2월8일-7월24일 매주 목요일
- 부산 051-537-2746/4월4일-6월27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 경주 053-761-5970/4월1일-6월19일 매주 화요일, 수요일
- 대구 0342-722-1763/4월3일-8월20일 매주 수요일
- 대전 042-534-1966/4월12일-8월12일 매주 월요일

※주간 / 오전 11시-1시 야간 / 오후 7시30분-9시30분